
		보 도 자 료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2년 1월 18일(화) 총 2매			
담당 부서 삼산농산물도매 시장관리사무소	담당자 • 운영팀장 김진송 ☎440-6455 • 담당자 장선아 ☎440-6482				
사진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 선물·제수용품, 인천시 삼산농산물도매시장에서 신선한 농산물로 준비하세요

- 1.18.부터 14일간 농산물 반입물량 확대 등 수급안정 대책 추진 -

인천광역시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해 신선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제공하고자 오는 18일부터 14일간 농산물 반입물량을 확대하는 등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삼산농산물도매시장에서는 수급안정대책으로 성수품의 반입량을 확대하고, 당초 휴업일인 23일과 30일에 개장함과 더불어 영업시간도 오후 3시에서 오후 5시로 연장해 운영한다. 이를 위해 도매시장법인(공판장)을 비롯해 중도매인들이 참여해 시민들에게 농산물을 공급할 예정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달 6일까지 한시적으로 농축수산물에 대한 청탁금지법 선물 가능 가액이 20만원으로 2배 상향되고, 코로나19로 인한 모임 자제로 선물을 주고받는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다.

시는 이번 대책이 최근 트렌드와 함께 농산물 소비를 증대시켜 코로나

19로 지쳐있는 농업인들에게는 활력을 주고 도시와 산지의 경제교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윤경 인천시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은 “설 명절을 맞아 산지에서 올라온 신선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농산물도매시장에서 많이 구입하시고 풍성한 설 명절 보내시기 바란다” 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경매장 소독, 매일 방역관리 이행 점검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

<붙임> 관련 사진



삼산농산물도매시장에 선물.제수용 과일들이 들어오고 있다